

유아의 상해위험행동 발달*

The Development of Injury Risk Behavior of Young Children

동남보건대학 보육과
부교수 김혜금

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Associate Professor : Hye Gum K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of cognition, emotion, and social context of young children's injury risk behavior according to age and gender. The participants were 150 children of 3 to 5 years old(boys were 75 and girls were 75).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wo-way ANOV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5 year old children knew potential injury risk better than 3 or 4 year old children. 2) Boys felt less afraid than girls on risk situation. 3) As age increased, the score of social context was higher. The score of social context of boys was higher than that of girls.

주제어(Key Words) : 상해위험에 대한 인지, 정서, 사회적 맥락 수준(the level of cognition, emotion, and social context of injury risk), 상해위험행동(injury risk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Hye Gum Kim, Department of Child Care Education, Dongnam Health College, 937 Jangja-Dong, Jangan-Ku, Suwon, Gyeonggi-Do, 440-714, Korea Tel: +82-31-249-6523 Fax: +82-31-249-6520 E-mail: khghoonba@hanmail.net

* 본 논문은 2011년도 동남보건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I. 서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는 유아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사고로 인한 유아의 사망률은 기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높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만 5세 이하 유아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다(통계청, 2009).

유아는 발달특성상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하며, 규칙에 도전하려는 욕구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한 반면,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항상 사고의 개연성을 지닌다(Swell & Gaines, 1993). 또한 유아기는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입을 가능성이 높는데(Aaron, Zaglul, & Emery, 1999; Morrongiello & Lasenby, 2006; Shannon, Bashaw, Lewis, & Feldman, 1992), 남아가 여아보다 더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하고(Alexander, Somerfield, & Ensminger, 1995; Bijur, Stewart-Brown, & Butler, 1986; Ginsburg & Miller, 1982; Hillier & Morrongiello, 1998; Rivara, 2000; Rosen & Peterson, 1990) 연령이 어릴수록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한다(김혜금, 2008; Hillier & Morrongiello, 1998; Scheidt, Harel, & Trumble, 1995).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위험에 대한 인지가 상해위험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Azwredo & Stephens-Stidham, 2003; Hiller & Morrongiello, 1998; Morrongiello & Rennie, 1998). 즉 유아가 어떤 상황을 위험하다고 인지하게 되면 위험한 행동을 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해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유아는 반대로 위험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상해위험에 대한 인식 못지않게 위험에 대해 느끼는 정서가 상해 발생률과 관계가 있음이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밝혀졌다. 위험한 상황이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즐기는 성인이나 청소년은 위험한 행동을 더 많이 하며 상해를 입을 가능성 또한 크다. 반면 위험한 활동을 두려워하는 성인과 청소년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며 조심하는 경우가 많다(Zuckerman, 1994).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청소년들은 나아가 약물 복용, 흡연, 알콜 등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Barnea, Teichman, & Rahar, 1992; Clayton, Cattarello, & Walden, 1991; Zuckerman, 1979). 유아를 대상으로 상해위험에 대한 정서를 살펴본 연구는 최근에 와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또한 많지 않지만 유아의 경우에도 상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유아가 위험한 행동을 더 많이 하고 남아가 여아보다 위험을 덜 두려워하고

위험한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Little & Wyver, 2010).

한편으로 유아기는 영아기와 달리 또래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시기로 또래는 유아의 사회적, 인지적 기술 습득이 기반이 되고 집단생활 성공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유아기는 또래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또래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또래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아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를 높이 평가할 때 또래의 영향이 더욱 커지게 되며 이로 인해 유아가 또래의 위험한 행동을 따라하거나 또래와 같이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면서 상해를 입기도 한다(Christenson & Morrongiello, 1997; Duryea, Ransom, & English, 1990; Morrongiello & Bradley, 1997; Morrongiello & Rennie, 1998).

유아의 상해위험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외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유아의 상해위험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에서 실시된 유아 안전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를 돌보는 성인 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김혜금, 김명순, 2007; 오가실, 심미경, 최은경, 2008; 정미라, 배소연, 1999; 차경순, 유연옥, 2006)가 다수이고 학령기 아동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나 안전실태에 초점을 둔 연구(김소선, 이은숙, 1999; 김신정, 2001; 김신정 외, 2003; 김신정, 이정은, 2000; 김신정, 이정은, 송미경, 2003; 김일옥, 이자형, 2001; 배정이, 2002, 2003; 이재남, 정명애, 박지원, 2006)가 많다.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이 어떻게 발달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 및 성과 관련하여 상해위험행동에 대한 인지, 정서, 사회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5세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의 인지, 정서, 사회적 맥락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만 3-5세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의 인지, 정서, 사회적 맥락 수준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서울시 서대문구와 동작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5곳에 다니는 만 3세 50명, 만 4세 50명, 만 5세 50명, 총 150명의 유아(남아 75명, 여아 75명)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아동 선정을 위해 5곳의 어린이집에서 만 3세반, 만 4세반, 만 5세반 연령별로 남녀 각 5명씩 동수를 무선으로 표집하였다. 연구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유아의 성별	남	75	50.0
	여	75	50.0
유아의 연령	만 3세	50	33.3
	만 4세	50	33.3
	만 5세	50	33.3
전 체		150	100.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상해위험행동 척도는 상해위험행동에 대한 인지, 정서, 사회적 맥락 수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Morrongiello와 Mathesis(2004), 이정은(2003)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유아교육과 교수와 아동학과 교수 3인에게서 연구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유아에게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위험에 대한 인지는 미끄럼틀을 거꾸로 타는 것과 여러 가지 약을 늘어놓고 먹는 것(2문항)에 대해 3점척도(1점-전혀 위험하지 않다, 2점-보통 정도로 위험하다, 3점-매우 위험하다)로 점수화되었고 상해위험에 대한 정서는 높은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과 커터칼을 가지고 노는 것(2문항)에 대해 3점척도(1점-매우 두렵다, 2점-보통 정도로 두렵다, 3점-전혀 두렵지 않다)로 점수화되었고, 상해위험에 대한 사회적 맥락은 차도에서 친구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 것과 친구들이 불장난하는 것(2문항)에 대해 3점척도(1점-전혀 하고 싶지 않다, 2점-보통 정도로 하고 싶다, 3점-매우 하고 싶다)로 점수화되어 유아가 받을 수 있는 각 하위영역별 점수는 2-6점이고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6-18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인지 수준이

.87, 정서 수준이 .83, 사회적 맥락 수준이 .79이었고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α 는 .82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9년 12월 22일에서 27일 사이에 서울시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각 연령별로 10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검사 수행 시간은 한 유아당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해하기 어려움이 어렵거나 애매한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한 보육시설 5곳에서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보육시설장에게 부탁하여 조용한 교실이나 상담실에서 유아와 일대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만 3-5세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에 대한 인지, 정서, 사회적 맥락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해위험행동의 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하위요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증으로 *Scheffe* 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의 인지, 정서, 사회적 맥락 수준

3-5세 유아의 위험 행동을 비교하기 위하여 인지, 정서, 사회적 맥락 수준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상해위험행동의 하위수준별 평균과 표준편차

		인지 수준		정서 수준		사회적 맥락 수준		전체	
		M	SD	M	SD	M	SD	M	SD
3세 (n = 50)	남	3.30	0.64	3.25	1.44	2.11	0.87	8.66	2.45
	여	3.13	0.68	3.02	1.65	2.02	0.44	8.17	2.57
	소계	3.22	0.54	3.14	1.57	2.07	0.76	8.42	2.49
4세 (n = 50)	남	3.55	0.97	3.31	1.47	3.17	1.47	10.03	2.99
	여	3.61	0.77	3.12	1.99	3.06	1.76	9.79	3.46
	소계	3.59	0.86	3.22	1.83	3.11	0.55	9.91	3.12
5세 (n = 50)	남	4.69	0.71	3.39	1.32	3.57	0.38	11.65	3.36
	여	4.68	0.63	3.21	0.82	3.23	1.63	12.25	3.21
	소계	4.68	0.69	3.30	1.11	3.40	0.55	11.12	2.76
전체 (n = 50)	남	3.54	1.01	3.32	0.95	2.95	1.09	9.81	3.37
	여	3.57	0.09	3.12	1.30	2.77	0.78	9.46	3.31
	소계	3.55	0.83	3.22	1.29	2.87	0.98	9.64	3.35

〈표 3〉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해위험행동에 대한 인지 점수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Scheffé
연령	0.62	2	0.31	7.20**	c > a, b
성	2.69	1	2.69	0.83	
연령×성	0.76	2	0.38	1.03	
오차변량	51.55	144	0.34		
전체	55.43	149			

연령: a = 3세, b = 4세, c = 5세, *** $p < .001$

〈표 2〉에서와 같이 상해위험행동의 총점 범위 6-18점 가운데 3세 유아는 8.42점을 나타냈고, 4세 유아는 9.91점, 그리고 5세 유아는 11.12점이었다. 이를 상해위험행동의 하위 영역별로 비교해보면, 점수 범위 2-6점 가운데 3세 유아는 인지 수준이 가장 높았고($M = 3.22$), 정서 수준($M = 3.14$), 사회적 맥락 수준($M = 2.07$)의 순이었다. 4세 유아도 인지 수준이 가장 높았고($M = 3.59$), 정서 수준($M = 3.22$), 사회적 맥락 수준($M = 3.11$)의 순이었다. 반면, 5세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은 위험에 대한 인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M = 4.68$), 그 다음 사회적 맥락 수준($M = 3.40$), 정서 수준($M = 3.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연령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상해위험행동의 정서 수준과 사회적 맥락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해위험행동의 인지, 정서, 사회적 맥락 수준

〈표 3〉에 따르면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에 대한 인지점수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F = 7.20, p < .01$)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후검사로 Scheffé 검증을 한 결과 만 5세아($M = 4.68$)가 만 3세아($M = 3.22$)와 만 4세아($M = 3.59$)보다 더 많은 상해위험행동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따르면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에 대한 정서 점수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7.21, p < .01$). 위험한 행동에 대해 여아($M = 3.12$)보다

〈표 4〉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해위험행동에 대한 정서 점수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연령	0.74	2	0.37	1.50
성	1.80	1	1.80	7.21**
연령×성	0.74	2	0.37	1.49
오차변량	37.78	144	1.68	
전체	41.81	149		

** $p < .01$

〈표 5〉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해위험행동에 대한 사회적 맥락 점수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Scheffé
연령	1.43	2	0.71	2.67*	a < b < c
성	3.21	1	3.21	11.94**	a < b
연령×성	0.20	2	0.10	0.37	
오차변량	37.17	144	0.24		
전체	124.00	149			

연령: a = 3세, b = 4세, c = 5세 / 성별: a = 여아, b = 남아, * $p < .05$, ** $p < .01$

남아($M = 3.32$)가 덜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따르면 유아의 연령($F = 2.67, p < .05$)과 성별($F = 11.94, p < .01$)에 따라 사회적 맥락 수준의 상해위험행동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사로 Scheffé 검증을 한 결과 만 3세아($M = 2.07$), 만 4세아($M = 3.11$), 만 5세아($M = 3.40$) 세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해위험행동의 사회적 맥락 수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 남아($M = 2.95$)가 여아($M = 2.77$)보다 상해위험행동의 사회적 맥락 수준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에 대한 유아의 인지, 정서, 사회적 맥락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해위험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해위험행동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위험행동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만 3세와 만 4세는 인지 수준이 가장 높았고, 정서 수준, 사회적 맥락 수준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만 5세는 위험에 대한 인지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맥락 수준, 정서 수준의 순으로 사회적 맥락 수준이 정서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 5세는 또래의 영향력이 훨씬 커짐을 의미하며 또래 집단에 소속되어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거나 반대로 또래 집단의 압력에 의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만 5세아의 경우 집단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다른 또래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이를 제지해야 한다는 것을 안전교육에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모든 연령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상해위험행동의 정서 수준과 사회적 맥락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상해위험행동에 있어서 두려움을 덜 느끼고 또래와 동조하

어 위험한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만 5세 유아가 만 3, 4세 유아보다 위험을 더 많이 인지하였지만 만 3, 4, 5세 모두 상해의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위험에 대한 인지가 발달된다고 주장한 Hillier와 Morrongiello(1998), Little와 Wyver(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잠재적 상해 발생의 심각성과 위험에 대해 더 잘 알수록 상해위험행동은 줄어든다(Morrongiello, 1997; Morrongiello & Rennie, 1998)는 점은 유아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으며 유아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도록 유아에게 지도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위험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남녀아간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Coppens(1985)와 Hillier와 Morrongiello(1998)의 연구와 일치한다. 위험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위험에 대해 남녀아가 다르게 지각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의 차이는 성차보다는 연령에 따른 발달차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상해위험에 대해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ittle와 Wyver(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위험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서는 상해위험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아가 여아보다 상해위험행동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거나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Barnes, Picard, Giovenazzo, & Tremblay, 1992; Caspi, et al., 1997; Zuckerman, 1979, 1994)은 위험을 받아들이는 행동은 위험에 대해 두려움을 덜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위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청년기와 성인기 동안 안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해위험행동의 주요 예측치로도 사용된다(Zuckerman, 1994). 본 연구결과는 위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의 남녀간 차이가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해위험행동에 대한 이러한 성차는 생물학적 차이로 볼 수 있으나 유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행동을 학습하면서 사회화되어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녀아의 상해위험행동에 있어서의 정서적 차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Granić, 2010). 즉 남아의 위험한 행동은 묵인하거나 수용하고 여아의 위험한 행동은 통제하거나 금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남녀아의 상해위험행동의 정서적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들은 아들과 딸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아주 어린 시기부터 다르게 반응함으로써 남아가 여아보다 위험한 행동을 덜 두려워하고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Morrongiello & Dawber, 1999). 원인이 어찌되었건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발생가능한 결과를 설명하고 상해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해 남아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모 및 성인 보육자의 상해위험행동에 있어서 성과 관련한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상해위험행동에 대한 정서에 있어서 만 3-5세 유아간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Granić(201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만 3-5세 유아기의 정서는 성인의 정서와 유사하며 유아기 동안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3-5세 유아간 상해위험에 대한 두려움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해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연령에 의한 발달차 보다는 성차가 더 크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이 사회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Christenson & Morrongiello, 1997; Duryea et al., 1990; Morrongiello & Bradley, 1997; Morrongiello & Lasenby, 2006; Morrongiello & Rennie, 1998; Potts & Swisher, 1998)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아의 연령 증가와 더불어 또래의 영향이 커지고 상해위험행동의 참여 또한 또래가 있을 때 더 많아지며 또래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같이 동참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아들은 또래가 있을 때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한 행동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남아의 경우 상해위험행동을 함에 있어서 또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용기있는 행동이 아님을 지도하고 안전하게 행동하는 또래를 모델링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안전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상해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상해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교육이 유아의 상해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에게 상해위험에 대해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유아의 위험한 행동을 줄이고, 상해 예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Morrongiello, Miron, & Reutz, 1998).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알고 과도한 위험을 피하는 능력은 유아가 상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Boyer, 2006). 따라서 유아기에 위험을 판단하는 능력은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능력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서 상해위험에 대한 유아의 인지를 향상시켜서 상해위험 행동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로 하여금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끼게 하고 사고로 인해 겪게 되는 상해의 고통을 두려워하도록 하여 유아 스스로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안전하게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안전 체험관을 상시

운영하여 유아가 주변 환경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상해 위험을 알고 느끼게 하며 사고로 인해 발생가능한 상해를 예시로 보여줌으로써 안전한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또래 친구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고 다른 성인에게 전달하여 나의 안전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배려하는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는 표준보육과정 기본생활영역의 만 3-5세 유아의 안전한 생활과 관련된 목표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상해위험에 대한 인지 지도가 필수적인 구인이 되어야 하며 위험한 상황과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알게 하여 상해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안전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친근한 또래나 형제자매가 유아의 상해위험을 증대할 수 있으므로 또래나 형제자매의 안전한 행동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상해 예방과 관련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보여주었지만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위험한 행동에 대한 결정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적으로 유아가 동일한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의도는 실제 행동과 관련되며 의도를 통해 실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Fishbein, et al., 2001),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유아의 의도는 유아의 상해위험행동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기 위해 유아의 실제적인 위험 행동을 관찰하여 유아의 위험에 대한 인지, 정서, 사회적 맥락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 4, 5세 유아들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들의 사고 발생률이 더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상해위험행동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김소선, 이은숙(1999).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안전사고 발생 실태 및 관련요인 분석. **한국간호과학회**, 29(1), 117-126.

- 김신정(2001).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7(1), 118-140.
- 김신정, 이정은(2000). 안전교육이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경향 예측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6(3), 372-386.
- 김신정, 이정은, 김정미, 박미옥, 박성숙, 송미경 외(2003). 학령기 아동의 안전교육 요구도 및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아동간호학회지**, 9(3), 250-258.
- 김신정, 이정은, 송미경(2003). 안전교육이 초등학생의 사고예방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9(4), 349-358.
- 김일옥, 이자형(2001).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3(1), 31-46.
- 김혜금(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상해위험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41-54.
- 김혜금, 김명순(2007). 영유아 부모를 위한 가정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5(2), 33-50.
- 배정미(2002).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실태 및 예방전략에 관한 조사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8(4), 435-448.
- 배정미(200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동간호학회지**, 9(2), 123-232.
- 오가실, 심미경, 최은경(2008).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육교사의 지식, 자신감, 실천. **아동간호학회지**, 14(2), 155-162.
- 이재남, 정명애, 박지원(2006). 초등학교 아동의 안전교육이 안전생활 실천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12(4), 441-543.
- 이정은(2003).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위험 지각 측정도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라, 배소연(1999). 유아교사의 안전지식의 정도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1), 189-205.
- 차경순, 유연옥(2006). 공립유치원 교사의 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실천. **아동교육**, 15(2), 163-178.
- 통계청(2009).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분석 보고서**. 대전: 통계청.
- Aaron, J., Zaglul, H., & Emery, R. E.(1999). Posttraumatic stress in children following acute physical injury.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4(4), 335-343.
- Alexander, C. S., Somerfield, M. R., & Ensminger, M. E.(1995). Gender differences in injuries among rural youth. **Injury Prevention**, 1(1), 15-20.
- Azwredo, R., & Stephens-Stidham, S.(2003).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njury prevention

- curricula for elementary schools: Lessons learned. *Injury Prevention*, 9(3), 274-278.
- Barnea Z, Teichman M., & Rahar G.(1992). Personality, cognitive, and interpersonal factors in adolescent substance use: A longitudinal test of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187-201.
- Barnes, S.-J., Picard, C. P., Giovenazzo, D., & Tremblay, C.(1992). The composition of nickel-copper sulphide deposits and their host rocks from the Cape Smith Fold Belt, northern Quebec. *Australian Journal of Earth Sciences*, 39, 335-347.
- Bijur, P. E., Stewart-Brown, S., & Butler, N.(1986). Child behavior and accidental injury in 11,966 preschoo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Diseases of children*, 140(5), 487-492.
- Boyer, T. W.(2006). The development of risk taking behavior and subsequent risk percep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6, 155-164.
- Caspi, A., Begg, D., Dickson, N., Harrington, H., Langley, J., Moffitt, T. E., et al.(1997). Self-control, health, wealth, and public saf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3, 1052-1063.
- Christenson, S., & Morrongiello, B. A.(1997). The influence of peers on children's judgements about engaging in behaviors that threaten their safet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3-44.
- Clayton, R., Cattarello, A., & Walden, K.(1991). Sensation seeking as a potential mediating variable for school-based prevention intervention: A two year follow-up of DARE. *Health Community*, 3, 229-239.
- Coppens, N. M.(1985). Cognitive development and locus of control as predictors of preschoolers' understanding of safety and preven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6, 43-55.
- Duryea, E., Ransom, M., & English, G.(1990). Psychological immunization: theory, research, and current health behavior applications. *Health Education Quarterly*, 17, 169-178.
- Fishbein, M., Triandis, H. C., Kanfer, F. H., Becker, M. H., Middlestadt, S. E., & Eicher, A.(2001). Factors influencing behavior and behavior change. In A. Baum, T. Revenson & J. Singer(Eds.), *Handbook of health psychology*(pp. 3-17). Mahwah, NJ: Lawrence Erlbaum.
- Ginsburg, H. J., & Miller, S. M.(1982).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risk tak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53, 426-428.
- Granié, M. A.(2010). Sex, Age and Gender as Determinants of Preschoolers' Injury-Risk Behavior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42(2), 726-733
- Hillier, L. M., & Morrongiello, B. A.(1998).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school children's appraisal of injury risk.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3, 229-238.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ittle, H., & Wyver, S.(2010).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risk perception and appraisals in outdoor play environ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18(4), 297-313.
- Morrongiello, B. A., & Bradley, M. D.(1997). Sibling power: Influence of older siblings' persuasive appeals on younger siblings' judgements about risk-taking behaviours. *Injury Prevention*, 3, 23-28.
- Morrongiello, B. A., & Dawber, T.(1999). Parental influences on toddler's injury-risk behaviors: Are sons and daughters socialized differently?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 227-251.
- Morrongiello, B. A., & Dawber, T.(2000). Mothers' responses to sons and daughters engaging in injury-risk behaviors on a playground: Implications for sex differences in injury rat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6, 89-103.
- Morrongiello, B. A., & Lasenby, J.(2006). Finding the daredevils: Development of a sensation seeking scale for children that is relevant to physical risk taking.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8, 1101-1106.
- Morrongiello, B. A., & Matheis, S.(2004). Determinants of children's risk-taking in different social-situational contexts: The role of cognitions and

- emotions in predicting children's decis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03-326.
- Morrongiello, B. A., Miron, J., & Reutz, R.(1998). Prevention of paediatric acquired brain injury: An interactive, elementary-school program.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6), 391-6.
- Morrongiello, B. A., & Rennie, H.(1998). why do boys engage in more risk-taking than girls? The role of attributions, beliefs, and risk appraisal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3, 33-44.
- Potts, R., & Swisher, L.(1998). Effects of televised safety models on children's risk taking and identificatio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3(3), 157-163.
- Rivara, F.(2000). Development and behavioral issues in childhood injury prevention.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16(5), 362-370.
- Rosen, B. N., & Peterson, L.(1990).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outdoor play injuries: A review and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187-205.
- Rosenblum, T.(2003). Risk evaluation and risk behavior of high and low sensation seekers.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31, 375-386.
- Russell, K., & Champion, V.(1996). Health beliefs and social influence in home safety practices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8, 59-64.
- Scheidt, P. C., Harel, Y., & Trumble, A. C.(1995), The epidemiology of nonfatal injuries among US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5, 932-938.
- Shannon, A., Bashaw, B., Lewis, J., & Feldman, W.(1992). Nonfatal childhood injuries: A survey at the Children's Hospital of eastern Ontario.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46(10), 1691-1892.
- Swell, K. H., & Gaines, S. K.(1993). Developmental approach to childhood safety education. *Pediatric Nursing*, 19(5), 464-466.
- Zuckerman, M.(1979). *Sensation seeking: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J: Erlbaum.
- Zuckerman, M.(1994). *Behavioral expression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접 수 일 : 2011년 4월 28일

심사시작일 : 2011년 5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1년 6월 15일